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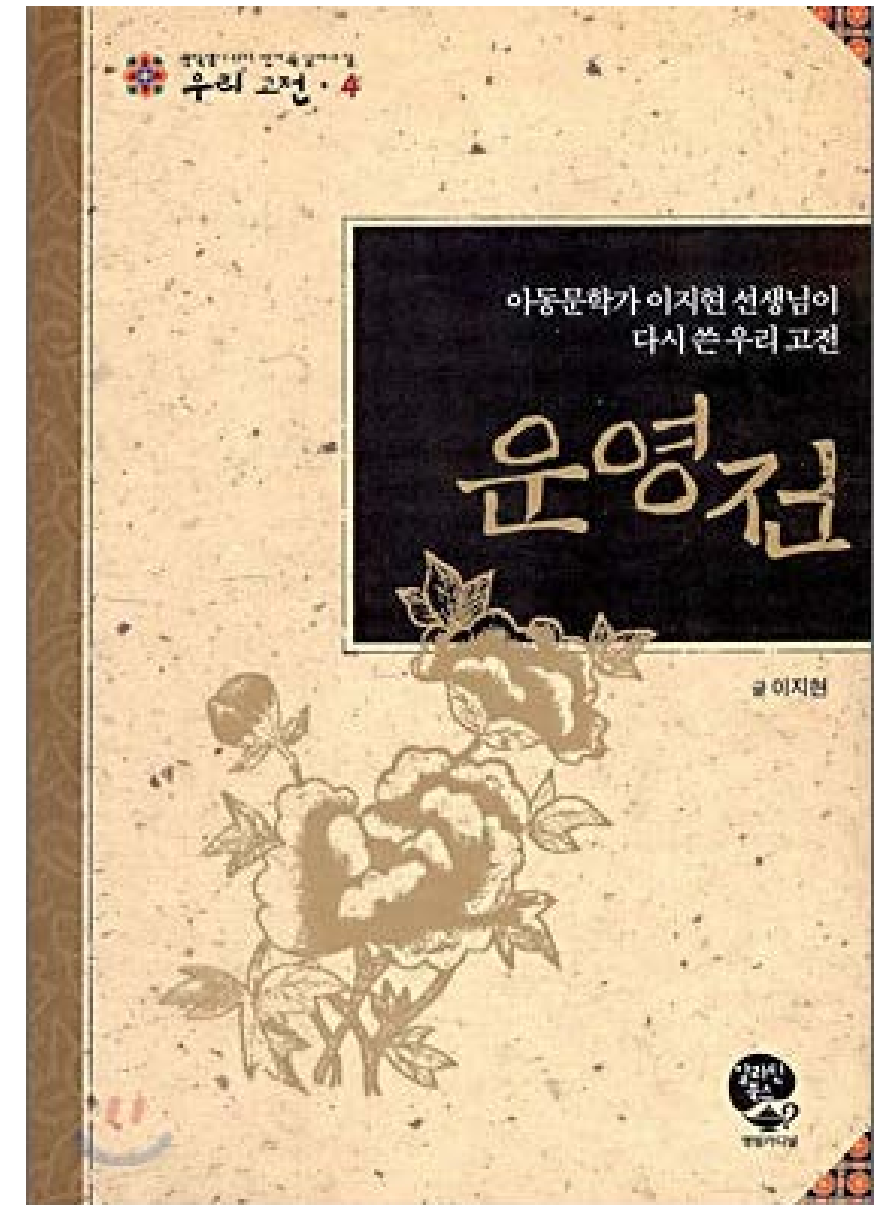
10주. 문학 사건들 3차시. 금지된 사랑 : <운영전>

학습목표

1. <운영전> 이야기를 통해 당대를 이해할 수 있다.
2. <운영전>의 사랑 및 갈등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운영전> 작품 개관

- 작자 미상
- 장르 : 한문소설, 애정전기소설
- 1권 1책, 한문, 한글 필사본
- 내용 : 궁녀 운영과 선비 김진사와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
- '수성궁몽유록(壽城宮夢遊錄)', '유영전(柳泳傳)'이라고도 불림
- 특징:
 - 구성상 몽유록의 형식을 취함(유영이 수성궁터에서 노닐다가 꿈을 꾸는데, 김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꿈에서 깨어남)



출처: YES 24

<운영전> 줄거리

- ① 선조 때의 유영은 안평대군이 살았던 수성궁에 놀러 갔다 술에 취해 잠이 든다.
- ② 잠에서 깨어 김 진사와 운영 두 사람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
- ②-1 안평대군은 재능과 미모가 뛰어난 궁인 10명을 뽑아 '수성궁'에 살게 했는데, 운영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어느 해 가을, 뛰어난 글재주를 가진 김 진사가 안평대군의 초청을 받아 수성궁에 들어오고, 운영이 김진사의 옆에서 시중을 듣게 된다. 그러던 중 운영이 먹을 갈다 먹물이 옷깃에 떨어지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운영전> 줄거리

궁녀는 외부 남자와 사랑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둘은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전하고, 대궐의 담을 넘어 서로 만나는가 하면, 둘이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사실이 안평대군에게 발각되고, 운영은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김 진사도 식음을 전폐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야기가 끝난 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든다.

- ③ 유영이 깨어 보니 꿈이었고, 김 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옆에 놓여 있다. 이후로 유영은 전국을 떠돌다가 행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운영전> 이야기 구성 방식

① 유영이 수성궁 방문(현실, 이야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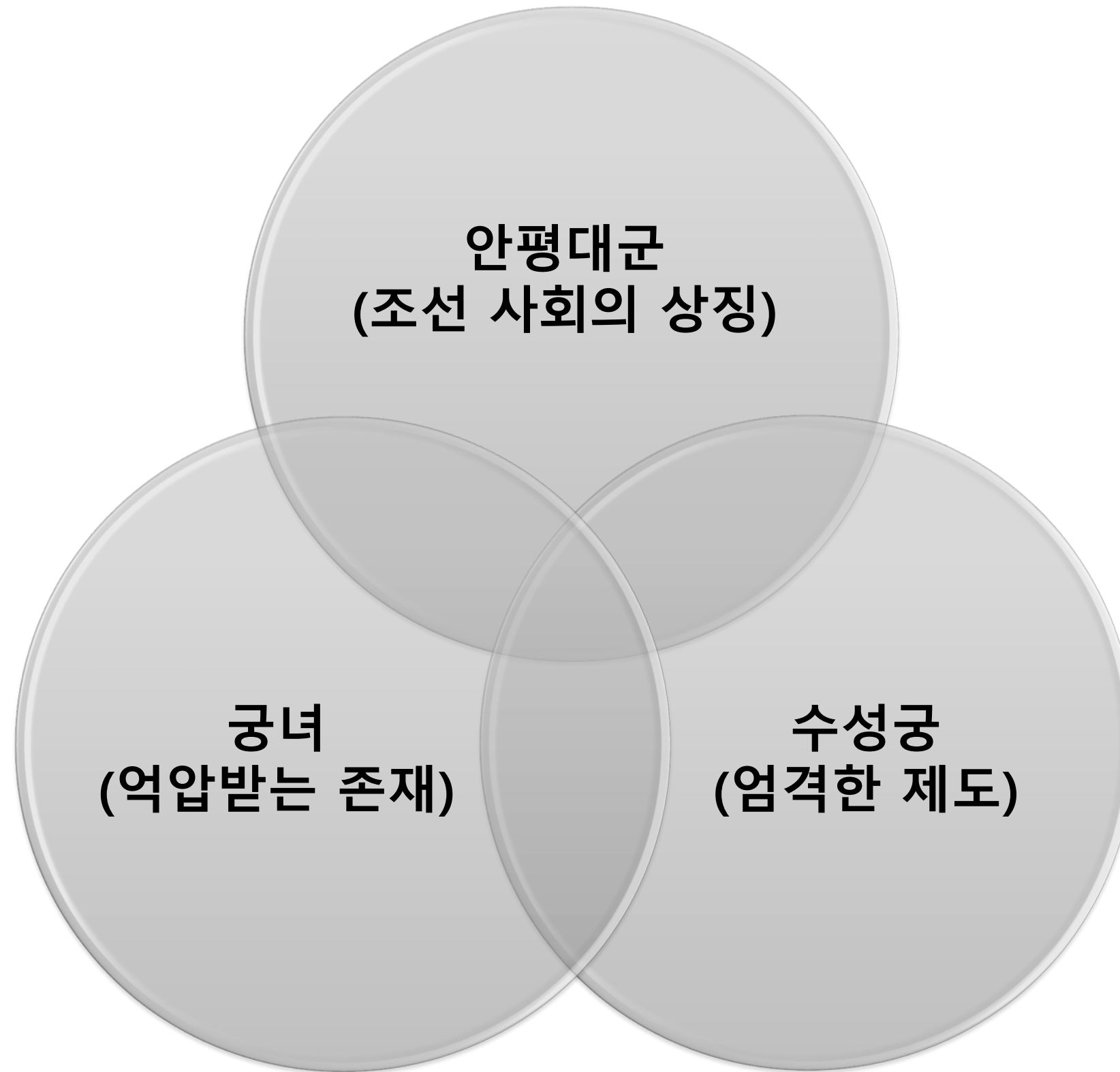


② 유영이 운영과 김진사를 만남(꿈, 이야기 2)

②-1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꿈, 이야기 3)



③ 책 한 권이 남음(현실, 이야기1)



안평대군

- 세종의 셋째 아들(1418~1453), 호는 비해당(匪懈堂)
- 시, 그림, 거문고에 모두 뛰어나고 당대 제일의 서예가로 명성
- 문사들과 어울려 연회를 베푸는 등 당대 문화계 중심인물
- 수양대군과 권력다툼을 벌이나 계유정난에 반역자로 몰려 희생

수성궁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옛집으로 장안성 서쪽 인왕산 아래에 있었다.

산천이 수려하고 용이 서리고 범이 일어나 앉은듯하며,

사직은 남쪽에 있고 경복궁이 동쪽에 있었다.

인왕산의 산맥이 굽이쳐 내려오다가 수성궁에 이르러서는

높은 봉우리를 이루었고 비록 험준하지 않지만

올라가 내려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수성궁

-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의 사궁의 이름. 원래는 '비해당'
- '비해당'은 안평대군이 인왕산 기슭 골짜기에 지은 집의 당호로, 이곳 비해당에 꽃, 나무, 연못 등을 화려하게 장식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 안평대군은 평소 친분이 있던 문사들을 대거 초청해 연회를 베풀었는데, 비해당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주제로 지은 시 '비해당 48영'이 전함

궁녀

- 일반적으로 궁의 일을 보는 여성을 지칭
- 궁녀는 모두 왕의 여자로 외간 남자로 통하다 적발되면 참형에 처함.
- 조선 초기부터 궁녀의 '성범죄는 '사형감'
- 이성교제 금지 속박은 현직 궁녀뿐만 아니라 전직 궁녀에게까지 부과

※ 조선시대 <수교집록><속대전><대전회통> 등의 법전에 “궁녀가 바깥사람과 간통하면 남녀 모두 즉각적으로 참형을 가한다”고 규정돼 있음

궁녀

<실제 사례> '귀열이 사건'

궁녀 귀열(貴烈)이 복주되었다. 이에 앞서 귀열이王大비전의 궁녀로서 자기 형부인 서리 이흥윤(李興允)과 몰래 간통하여 임신했는데, 일이 발각되자 상이 내수사에 가두라고 명했다. ...(중략)... 형조가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고 아뢰자, 상이 등급을 높여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해조가 법을 인용하여 간쟁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즉시 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정원도 역시 법이 한번 잘못 시행되면 뒤 폐단에 적지 않게 관련되니 해조의 논의대로 행하라고 청했는데, 상이 또 듣지 않아 드디어 참수했다. 그녀의 아버지 광찬(光燦)과 어머니 숙지(淑只)도 역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울러 형신을 받고 정배되었다. 흥윤은 도망했는데 수색했으나 잡지 못했다.

-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1667년) 5월 20일 계해 1번째기사



<운영전> 이해 및 감상

1. 궁녀와 선비라는 신분을 뛰어 넘은 비극적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 애정소설

- 본격적인 애정소설로 인간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소설을 통해 표출
- 남녀 간의 사랑(자유연애)을 본격적으로 다룸

2. 조선사회의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 당대 조선 사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모순, 인간성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냄
(자유연애 금지, 엄격한 신분제, 자유와 인간의 감정에 대한 구속의 문제)
- 운영의 죽음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을 관습과 규범으로 억압하는 것이 모순임을 드러냄
- 조선 사회의 제도와 관습이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구속하고 억압하는지 보여줌
- '궁중'에 갇힌 궁녀들의 삶이 잘 표현됨

Quiz로 정리하기

1. '수성궁(궁궐의 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담 안은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다
- ② 담 안에서 궁녀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 ③ 담을 넘는 것은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 ④ 담 밖은 담 안과 달리 신분적 위계가 없다.